



보도 일시	2022. 12. 16.(금) 10:00	배포 일시	2022. 12. 16.(금)
담당 부서	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과	책임자	과장 조현수 (044-201-6678)
		담당자	사무관 박지의 (044-201-6685)

## 올해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...규제혁신 논의

### -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등 산업계 현안 논의 -

- 환경부(장관 한화진)와 대한상공회의소(회장 최태원, 이하 대한상의)는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'2022년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'를 개최한다.
  - '기업환경정책협의회'는 2000년 이후 매년 상·하반기에 걸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상시적인 협력회의다.
  -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 회장을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.
- 환경부는 '환경규제 혁신 방안' 및 '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'을 소개하고,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.
  - 환경규제 혁신은 △덩어리 규제를 혁신 유도형으로 전환, △탄소 중립, 순환경제 관련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혁신, △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국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.
  - 특히,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각종 지원(인센티브)이 확대되고, 행정절차를 효율화하여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드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.

- 아울러,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 및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.
-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“국제 에너지 위기와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”이라면서 “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”라고 밝혔다.
-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“전 세계 경제질서가 ‘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’과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”이라며, “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2022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계획. 끝.



□ **개 요**

- (일시) 2022년 12월 16일(금) 10:00~11:30
- (장소) 대한상공회의소 EC룸(1층)
- (참석) 환경부 차관, 녹색전환정책과장 및 안전 소관 과장, 대한상의 부회장, 환경기후위원회 위원 등
- (주요내용) 환경부 규제혁신방안 및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소개, 기업 건의 과제 논의 등

□ **세부일정**

시 간		내 용	비 고
10:00~10:05	5'	기념촬영, 개회 및 참석자 소개	사회자 (대한상의 탄소중립실장)
10:05~10:10	5'	인사 말씀	환경부 차관· 대한상의 부회장
10:10~10:20	10'	환경규제 혁신방안	환경규제현장대응TF 팀장
10:20~10:30	10'	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개선방안	기후경제과장
10:30~11:20	50'	종합토의 및 질의·응답	전 참석자
11:20~11:30	10'	마무리 말씀 및 폐회	환경부 차관· 대한상의 부회장